

보도시점

2024. 5. 30.(목) 09:00

배포

2024. 5. 30.(목) 09:00

농어촌공사, 기후변화 대응 수질 환경관리 강화한다!

- 녹조 예찰 지구 확대하고, 녹조 저감을 위한 신기술 지원 등 대응체계 마련 -

한국농어촌공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집중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녹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맑고 안전한 용수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30일 밝혔다.

공사는 매년 녹조 집중관리 기간(4월~12월)을 설정하고, 녹조의 사전 감시·예방·제거 등이 연계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수질관리에 집중해 왔다. 또, ‘수질환경보전회’*, ‘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’** 거버넌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수질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계 보전의 지속성을 높여오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* 수질환경보전회: 환경단체, 지역주민, 지자체, 공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유역 오염원 사전 차단과 상류 오염원 관리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

**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: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 방안(토양·용수·생태·경관 등 각 분야별 농업 환경 보전 활동 지원) 추진 등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·개선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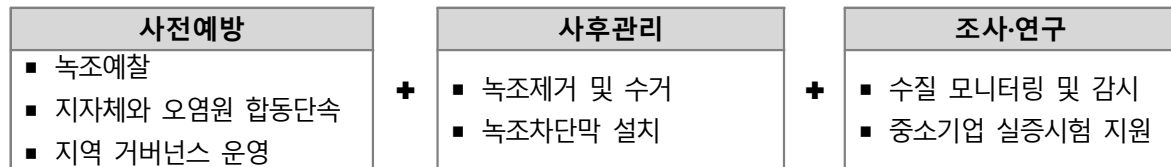
이에 올해부터는 수질오염 전문가로 구성된 「ECO-4U센터」 운영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, 녹조 예찰 지구를 확대('23년 275개소 → '24년 387개소) 하는 등 강화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.

아울러, ‘수질개선 실증실험’으로 중소기업의 녹조 저감 신기술을 지원하고, 물순환·인불용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‘KRC수질보전대책’을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힘쓸 계획이다.

이승현 환경관리처장은 “모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관리하는 중”이라며 “수질관리는 국민 먹

거리 안전에 직결되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전했다.

* [참고] 농업용수 녹조관리 활동



담당 부서	환경관리처	책임자	부 장	김원장 (061-338-5831)
	수질환경부	담당자	대 리	박소미 (061-338-5837)